

# 사회수요 맞춤형 무용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관 협력 방안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에 근거하여

배수을\*

I. 서론	V. 결론
II. 무용전문인력의 취업률과 문제점	참고문헌
III. PRIME 사업에 근거한 산업연계형 무용학과 교과과정(안)	Abstract
IV. 산학관 협력을 통한 사회수요 맞춤형 무용전문인력 양성 방안	

## I. 서론

### 1. 연구 배경

최근 우리사회는 디지털 정보혁명에 따른 스마트한 진화를 비롯하여 인프라 환경의 변모로 인해 기존에 없었던 미래 유망 신직업 창출을 예견하고 발굴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국민들의 오랜 숙원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각 전공 분야별로 진로와 취업의 연계를 모두 흡수하여 현실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맹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책임을 정책 부실의 탓으로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근본적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기능을 하는 대학 교육기관에는 분명 중추적인 역할과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대학은 이제 상아탑으로서 인격 함양만을 중시하는 교육 본질론자들의 주장보다는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인적 자본론자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sup>1)</sup> 또한 기업체에서도 만족도 높은 취업과 안정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을 위한 지원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16년 2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은 20개 사립대학 총장들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현재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기술과 산업이 급변하고 있는 대변화 속에서 ‘대학은 기업과 사회의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미래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양성하고, 또 세계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학생과 기업,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적기에 파악하고,

\* 단국대·서경대 강사, eul0715@hanmail.net

1) 민춘기(2013), 대학생 진로교육 개선을 위한 해외의 정책과 운영 사례 비교, 『비교교육연구』 23(4), pp.31-32.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이에 부응해 나가야 하겠다”<sup>2)</sup>고 당부하였다. 이와 같은 대학교육의 실효성 제고는 곧 학생과 교육기관 및 기업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교육 실현과 취업 연계의 성과로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다. 현 정부 18대 국회는 지난 2015년 중점 추진과제였던 ‘창의인재 양성’과 ‘능력중심사회 구현’에 이어 2016년에는 ‘자유학기제 확대’, ‘공교육 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개혁’,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일·학습병행제 확산’, ‘선취업·후진학 활성화’ 등의 <교육개혁 6대 과제><sup>3)</sup>를 선포하였다.

<교육개혁 6대 과제> 중에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과 관련된 과제는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일·학습병행제 확산’, ‘선취업·후진학 활성화’의 세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일·학습병행제 확산’의 경우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Uni-Tech)이 중심이 된다는 점, 국가직무능력표준(NCS)<sup>4)</sup>에 기반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직업교육으로 개편해나가는 과정이 산업계 주도로 추진된다는 점이 4년제 대학 무용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관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방향과 다르다. 또한 ‘선취업·후진학 활성화’의 경우는 고졸 취업 문화의 확산 및 후진학 기회 확대를 위해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의 계속교육을 전담하는 평생교육 단과대학의 개편에 초점을 두고 있기에 전반적 고등교육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방향과는 거리가 있다.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의 경우 전반적 고등교육의 영역에서 사회수요를 고려한 인력 미스매치와 청년실업 해소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기반이 되는 교육정책으로서 가장 적절하다. 이에 본 논문은 일차적으로 <교육개혁 6대 과제> 중에서 사회인으로서의 도약을 위한 직전 단계인 대학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정책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본 연구가 교육개혁 정책에 근거를 두었으나 단지 정책적 요구에 무응계도 부응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관련 연구들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기존 무용교육과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진로와의 연계성을 연구함에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협력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계기가 그 배경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동안 무용학계에서는 1993년 발표된

2) 이영태(2016년 2월 4일), 박 대통령 “대학은 기업과 사회 발전 이끄는 동력”,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204000532>, 2016. 2. 4.>.

3) ① 자유학기제 확대: 중학교 과정 중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 속에서 자신의 꿈과 끼를 찾고, 창의성·인성·자기주도 학습능력 등 사회에서 필요한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공교육 정상화 추진: 학교교육만으로도 평가·입시 대비가 충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공교육 정상화와 행복교육을 실현한다.

③ 지방교육재정 개혁: 학생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재정정보 공개 평가를 강화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고자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추진한다.

④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학령인구 감소, 창조경제 시대로의 전환 등 급변하는 사회·산업구조 및 지역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고등교육과 산업수요 간 인력 미스매치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대학 학사제도와 교육과정의 유연성이 높아지도록 유도한다.

⑤ 일·학습병행제 확산: 학교와 기업현장을 오가며 배우는 현장중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전체 공업계 특성화고로 확산하고,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을 도입한다.

⑥ 선취업·후진학 활성화: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현장중심의 직업교육으로 꿈을 실현하여 나가도록 학교, 기업이 협력하는 고졸 취업 문화를 확산하고, 고교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교육개혁 홈페이지, <<http://www.moe.go.kr/public/educationReform/index.jsp>, 2016. 1. 10.>.

4)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산업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을 의미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 <[http://www.ncs.go.kr/ncs/page.do?sk=P1A1\\_PG01\\_001](http://www.ncs.go.kr/ncs/page.do?sk=P1A1_PG01_001), 2016. 2. 19.>.

「무용(학)과 졸업생 진로문제의 방향 모색을 위한 무용(학)과의 체제분석」<sup>5)</sup> 연구를 시초로 하여 2006년 「무용학과의 전문교육과 취업방안에 관한 연구」,<sup>6)</sup> 2007년 「대학무용과의 교육과정과 취업에 대한 연구」,<sup>7)</sup> 「무용전공 대학생의 진로성향에 따르는 교과과정 연구」,<sup>8)</sup> 2012년 「시장중심 무용학과 교과과정 모형 개발 제안」<sup>9)</sup> 연구 등이 발표되었다. 이와 같이 다년간에 걸쳐 간헐적으로 수행되어져 온 무용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진로와의 연계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무용전문인력의 취업 실태를 재점검하고, 교육과정의 문제점 파악을 통한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활동영역 확장 등과 같은 유의한 시사점도 도출된 것은 학술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성과들이라고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사된 취업통계자료<sup>10)</sup>에 의하면 2014년도 무용전공 졸업자의 취업률은 여전히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제는 무용 및 무용전문인력을 보다 큰 사회구조 내에서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대학 교과과정 개선 그 이상의 협력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본다. 즉, 사회수요 맞춤형 대학 교과과정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산학관 각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은 교육개혁 과제 중 고등교육 부문 핵심 과제인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의 일환으로, 사회변화와 사회수요에 맞는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유도함과 동시에, 국가발전의 토대인 인문학 진흥으로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16년부터 개편 추진되는 사업”<sup>11)</sup>이다. 교육부는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의 필요성’<sup>12)</sup>에 대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적자원의 생산성 고조, 지역산업 수요와 연계할 수 있는 인재 배출, 미래유망 분야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의 구체화를 위한 조치로서 그 이유를 역설하였다.

세부사업으로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이하 PRIME<sup>13)</sup> 사업, 대학 인문역량 강화 사업(이하 CORE<sup>14)</sup> 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육성 사업이 운영된다. CORE 사업의 목적은 기초학문으로서 인문학의 역량 및 위상 강화,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인문학 육성, 인문학 진흥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있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육성 사업은 고졸취업자 및 성인학습자의 선취업·후진학을 통한 지속교육의 기회 제공, 새로운 학습자 수요 확보에 따른 고등교육의 영역 확장에 목적이 있다. 한편 PRIME 사업은 사회변화와 산업수요에 맞는 대학의 구조 개선을 통한 인력의 양적·질적 미스매치 해소 및 진로역량 강화를 통한 대학생들의 사회진출 용이성을 목적으로 하기에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 또한 PRIME 사업은 학사구조 개편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수요가 있는 분야로 우수한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사회 진출을 위한 대학의 진로·취업 교육 및 기능 강화와 체제를 구축”<sup>15)</sup>하고자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

5) 김희숙(1993), 무용(학)과 졸업생 진로문제의 방향 모색을 위한 무용(학)과의 체제분석,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 pp.7-27.

6) 조은숙(2006), 무용학과의 전문교육과 취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17(2), pp.1-14.

7) 김영옥(2007), 대학무용과의 교육과정과 취업에 대한 연구, 『대한무용학회논문집』 53, pp.23-37.

8) 최오일·조성식(2007), 무용전공 대학생의 진로성향에 따르는 교과과정연구, 『우리춤과 과학기술』 5, pp.205-224.

9) 최윤선(2012), 시장중심 무용학과 교과과정 모형 개발 제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 pp.254-264.

10) 본 논문의 II장 참조.

11) 교육부(2015년 10월 21일),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 기본계획 시안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http://blog.naver.com/moeblog/220515010418>, 2016. 1. 5.>.

12) 교육부(2015년 9월 10일), 청년 일자리와 취업 문제 해결 뿐 아니라 더 나은 일자리창출을 돕는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 교육부 카드뉴스, <<http://blog.naver.com/moeblog/220477487157>, 2015. 12. 20.>.

13) PRIME: Program for Industrial Needs Matched Education.

14) CORE: Initiative for College of Humanities' Research and Education.

15) 교육부(2015),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 공청회 설명자료』.

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전개과정에서 PRIME 사업에 근거한 산업연계형 무용학과 교과과정(안)을 도출하는 것은 사회 진출을 위한 대학의 진로 및 취업 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고, 그 중점내용들과 연계되는 산학관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무용전문인력의 사회 진출을 위한 각계의 기능 강화와 체제를 구축하는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 세부사업 중에서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을 지향하는 PRIME 사업의 주요 내용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무용전문인력 양성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 2.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

사회수요를 고려한 인력양성 차원에서의 고등교육 개혁과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로는 인적 자원의 개념에서 중국의 대학 졸업생을 위한 고등 교육 개혁과 고용 기회에 대한 연구<sup>16)</sup>, 나이지리아 노동 시장과 고등 교육의 불균형 현상에 기인한 실업에 대한 연구<sup>17)</sup> 등이 최근 해외에서 수행되었다. 또한 연구내용과 방법적 측면에서 본 연구와 밀접한 연구로는 광고<sup>18)</sup>와 스포츠<sup>19)</sup> 분야의 선행연구가 있다. 두 가지 연구 모두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 학계, 정부 공동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유사하다. 그러나 이희복(2014)의 연구는 광고계의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것에 비해 대학에서는 예비광고인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광고전문인력 부족의 심각성을 제기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이 요구되는 무용계 실정과는 대치되는 관점을 지닌다. 전호문(2005)의 연구는 지역스포츠산업의 산학관 협력에 관한 국외 사례 및 국내 지역스포츠산업 현장의 질적·양적 자료수집을 통해 지역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관 협력 모델을 개발하였다.

한편 무용 분야의 경우, 현장에서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관 협력 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실정으로 산학관 협력 관련 연구 또한 부재하였다. 그러므로 현장성과 관련된 실증적 분석은 후속 연구의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하며, 본 연구는 후속 연구에 앞선 기초연구로서의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사회현안을 직시하여 새롭게 제시된 국가의 정책을 파악해보고 무용전공자들의 대응을 위하여 산학관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궁극적으로는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학술적 연구자료로서의 가치를 기대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PRIME 사업에 근거한 무용학과 학사운영(안)의 중점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그 중점내용들과 연계되는 산업연계형 무용학과 교과과정(안)은 어떻게 도출되는가? 셋째, 그 중점내용들과 연계되는 산학관 협력(대학 ↔ 산업체<sup>20)</sup>, 행정기관 ↔ 대학, 산업체 ↔ 행정기관) 방안은 무엇인가?

16) Shuang Ren, Ying Zhu and Malcolm Warner(2011), Human resources, higher education reform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university graduate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22(16), pp.3429-3446.

17) M. A. Adebisi and F. O. Akinkuowo(2015), Contemporary Issues Necessitating Reform in Higher Education Programs and Curricula in Response to Challenges of Employability, *African Higher Education Review*, 9(1-2), pp.71-77.

18) 이희복(2014), 광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관 협력 방안, 『광고연구』 102, pp.181-201.

19) 전호문(2005), 『지역스포츠 산업 개발을 위한 산학관 협력 모델 개발[결과보고서]』, 한국연구재단(NRF) 연구성과물.

20)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산업체(産業體)'라는 용어는 생산하는 업체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사업을 경영하는 기관으로서의 '사업체(事業體)', 기업을 경영하는 기관으로서의 '기업체(企業體)' 등 모두 취업이 가능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상통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무용 분야에서의 사회수요를 고려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관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문헌연구 방법에 의해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주요 자료는 ‘교육개혁’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교육개혁 6대 과제별 사업내용과 인력 양성 및 진로·취업, 산학관 협력에 관한 선행연구들이다. 그 외에도 정부간행물인 취업통계연보와 뉴스기사 등을 통해 이론적 근거를 보충하였다. PRIME 사업에 근거한 산업연계형 무용학과 교과과정(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자들의 관점과 PRIME 사업의 중점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산학관 협력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에서는 한국연구재단(NRF) 연구성과물 결과보고서로 제출된 전호문(2005)의 『지역스포츠 산업 개발을 위한 산학관 협력 모델 개발』 자료에 사용된 분석틀을 차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산학관 각계의 개별적 역할이 통합되는 협력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 대학 ↔ 산업체, 행정기관 ↔ 대학, 산업체 ↔ 행정기관으로의 상호 역할 모색에 의한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로 도출된 산학관 협력 주체들의 상호 역할을 다시 개별적 역할로 요약하여 결론에 제시하였다.

## II. 무용전문인력의 취업률과 문제점

이 장에서는 대학 계열별 취업 현황 및 예체능계열의 전공별 비교를 통해 무용전문인력의 취업률을 파악해보고 선행연구 논의를 살펴 문제점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공시한 『2014년 취업통계연보』<sup>21)</sup>에 따르면 학과(전공)분류체계에 따라 다음의 <표 1>과 같이 7대 계열별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취업률<sup>22)</sup>이 보고되었다. 2015년 3월 16일부터 2015년 4월 3일까지 전국 567개 고등교육기관 2014년 2월 졸업자(2013년 8월 졸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이다.

<표 1> 2014년도 대학 계열별 취업 현황<sup>23)</sup> (단위: 명, %)

구분	전체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
졸업자	301,606	38,718	90,239	15,360	69,417	36,529	16,992	34,351
진학자	26,043	3,325	3,010	804	8,534	7,181	529	2,660
진학률	8.6	8.6	3.3	5.2	12.3	19.7	3.1	7.7
취업자	141,993	14,446	43,309	6,736	38,711	14,782	11,612	12,397
취업률	54.8	45.5	54.1	48.7	65.6	52.3	72.1	41.4

<표 1>에 의하면 취업률이 가장 높은 계열은 의약계열(72.1%)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공학계열(65.6%)이 높았다. 이어서 사회계열(54.1%), 자연계열(52.3%), 교육계열(48.7%)의 순으로 취업률이 높았다. 인문계열(45.5%)과 예체능계열(41.4%)은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1) 한국교육개발원(2015), 『201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 취업통계연보』(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pp.78-85.

22) 건강보험DB연계 취업률(%).

23) 취업대상자 = 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제외인정자).

〈표 2〉 2014년도 대학 예체능계열의 전공별 취업 현황 (단위: 명, %)

구 분	전 체	음악	미술·조형	디자인	무 용	연극·영화	응용예술	체 육
졸업자	34,351	6,018	3,357	10,618	915	1,554	4,107	7,782
진학자	2,660	804	504	388	153	68	282	461
진학률	7.7	13.4	15.0	3.7	16.7	4.4	6.9	5.9
취업자	12,397	1,144	899	4,679	218	465	1,572	3,420
취업률	41.4	22.9	32.0	48.4	29.7	32.6	44.8	50.0

〈표 2〉에 의하면 예체능계열 내에서 가장 취업률이 높은 전공은 체육(50%)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디자인(48.4%)과 응용예술(44.8%) 전공이 높았다. 이어서 연극·영화(32.6%), 미술·조형(32.0%)의 순으로 취업률이 높았다. 무용(29.7%)과 음악(22.9%)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저조한 반면, 대학원 진학률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해준, 이윤경<sup>24)</sup>에 따르면 4년제 대학교 무용전공 대학생 382명을 대상으로 졸업 후 희망진로 분야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무용수’ 113명(29.6%), ‘무용 관련 실기교사’ 67명(17.5%), ‘교수 및 교사’ 59명(15.4%), ‘안무가’ 35명(9.2%), ‘예술경영 및 행정 관련 분야’ 31명(8.1%), ‘공연예술 관련 분야 전문가’ 28명(7.3%), ‘프리랜서’ 18명(4.7%), ‘기타’ 18명(4.7%), ‘문화예술 분야 공무원’ 13명(3.4%)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통계결과로부터 다수의 무용전공 대학생들이 전공분야로의 취업을 희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공급될 인력 대비 관련 직종의 사회수요가 부족한 실정 때문에 결국 저조한 취업률로 악순환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무용 전공자의 취업률이 저조한 원인은 복합적이며 다양하다. 조은숙<sup>25)</sup>의 연구에서는 무용 전공자의 취업률 저조 원인과 관련하여 시대변화에 따른 무용예술계의 다양한 직업 창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언급하면서 크게 교과과정의 문제, 무용교육자 취업의 한계, 무용단 취업의 한계 등 세 가지 주요문제를 거론하였다. 첫 번째로 무용학과의 전공구분을 살펴보면 생활무용, 사회무용 등의 전공이 개설된 사례가 있기는 하나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등 삼분법의 적용으로 “대부분 전통적인 전공 구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폭넓은 전공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sup>26)</sup>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전통적 전공구분은 전공실기 연마에만 집중하게 되는 교과과정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학교 교과과정과 진로선택의 연계가 미흡하여 무용전공 교과과정 내 진로 및 취업교육의 한계가 지적되어 온 부분이다. 두 번째는 무용전공자의 취업과 관련된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로 특히 개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용교과 독립에 관한 것이다. 무용교과독립추진위원회<sup>27)</sup>는 〈무용교과 독립을 위한 결의문〉을 통해 “첫째, 예술 교과의 하나로서 무용교과의 독립과 둘째, 체육교과 사자자격증에서 무용교과사자자격증 부여로 제도 변경, 셋째, 초등학교에 무용전담교사제 실시 등은 21세기의 중요한 국가 정책으로 적극 수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제기하였다. 2002년 무용교과독립추진위원회가 발족된 이후 지속적인 무용계의 염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중등 공교육에 있어 무용이 예술교육의 한 분야이자 독립된 학문으로서 그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체육교과의 일부

24) 이해준·이윤경(2014), 무용전공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의식 조사, 『한국무용과학회지』 31(2), p.25.

25) 조은숙(2006), pp.3-6.

26) 김영옥(2007), p.29.

27) 무용교과독립추진위원회(2003), 『무용교과독립을 위한 제2차 심포지움: 무용교육 현장보고』, p.43.

로 종속되어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 무용교과독립의 문제는 초·중등 공교육 일선 학교에 무용교사들의 일자리 수요가 대거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무용전문인력의 취업과 연계되는 교육정책의 개선이 촉구되는 사안이다. 현재 그에 대한 대안으로 무용 분야의 문화예술교육사 배출과 예술강사 양성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 또한 인력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사 양성과 예술강사 지원 및 배치는 연계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무용학과가 개설된 대학교 및 전문대학에서 한 해에 약 1,000-1,500여 명의 무용전공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에서 “기존의 안정적인 관 주도 무용단은 이미 정족수가 차 더 이상 신입 단원을 뽑기가 힘들어 졌으며 또 뽑더라도 2-3명 내외로 취업의 문은 지극히 좁다고 볼 수 있다.”<sup>28)</sup>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고려해 볼 때, 그 동안 유지되어 왔던 전공실기 위주의 교과과정은 무용 관련 취업 현장을 고려한 산업연계형 교과과정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실증적인 차원에서 취업 현황을 분석한 최윤선<sup>29)</sup>의 연구에서는 서울·경기에 소재한 4년제 대학 중 무용학과를 개설한 10개 대학의 무용전공 졸업자 334명을 대상으로 2008~2010년까지 3년간의 취업 직종을 조사한 결과 무용 관련 직종<sup>30)</sup>이 224명(67.0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사무 관련 직종<sup>31)</sup> 59명(17.67%), 체육 관련 직종<sup>32)</sup> 31명(9.28%), 기타 직종<sup>33)</sup> 20명(5.9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서 무용 관련 직종으로의 취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해서 무용 전공자들의 취업을 위한 사회수요가 안정적이라고 받아들이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표 2>에서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무용전공의 경우 전체 졸업자 대비 취업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새롭고 다양한 취업 방향이 모색되어야 안정적으로 취업률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력양성의 미스매치가 아닌 사회수요 맞춤형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산학관의 협력 체제의 구축이 요구된다 하겠다. “무용전공자들은 대다수 졸업 후에도 무용을 계속하거나, 진로선택에 있어서도 대학원 진학이나 무용 관련 직업에 종사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극소수의 졸업생들만 취업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sup>34)</sup> 그러므로 이제는 무용전공자들이 무용 관련 직종에만 한정되지 않고 융복합적 사고를 발휘하여 다양한 진로로 진출해나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야 한다.

### III. PRIME 사업에 근거한 산업연계형 무용학과 교과과정(안)

이 장에서는 대학의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PRIME 사업의 주요 내용을 중점적

28) 백현순(2012), 무용전공자의 취업 방향 모색, 『한국무용연구』 30(1), p.166.

29) 최윤선(2012), pp.254-264.

30) [무용 관련 직종]: 무용수 83명(24.85%), 무용학원 강사 44명(13.17%), 유치원 교사 33명(9.89%), 문화원 강사 20명(5.99%), 유아무용강사 14명(4.19%), 초·중·고등학교 출강 무용강사 13명(3.89%), 무용가 및 안무가 7명(2.1%), 댄스 강사 4명(1.2%), 무용의상 디자이너 3명(0.9%), 보육교사 3명(0.9%).

31) [사무 관련 직종]: 회사 사무원 28명(8.38%), 협회 및 교육원 사무원 15명(4.49%), 대학 조교 7명(2.1%), 비서 6명(1.8%), 사회복지사 2명(0.6%), 은행원 1명(0.3%).

32) [체육 관련 직종]: 요가 강사 15명(4.49%), 휘트니스 강사 13명(3.89%), 레크리에이션 강사 2명(0.6%), 골프클럽 강사 1명(0.3%).

33) [기타 직종]: 행사 기획사 15명(4.49%), 여행 및 통역 안내원 4명(1.2%), 음악학원 운영 1명(0.3%).

34) 김철아, 김선웅(2014), 무용전공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진로성숙도의 특성분석, 『체육연구』 10(1), p.54.

으로 파악하고 무용전문인력 양성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PRIME 사업에 근거한 산업연계형 무용학과 교과과정(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PRIME 사업은 학생 중심의 교육개혁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수요 선도대학 사업’과 ‘창조기반 선도대학 사업’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리 운영된다. 이는 향후 다양한 선도모델을 창출하는 데에도 기반이 될 수 있다.

〈표 3〉 PRIME 사업 유형별 주요 내용<sup>35)</sup>

유형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	창조기반 선도대학(소형)
유형별 내용	사회변화와 산업수요 중심으로 대학 전반의 학사조직과 정원 조정 선도	창조경제, 미래 유망산업 등 특정 분야 중심의 인력 양성을 위한 개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취업 중심의 학과 개편과 학생중심의 학사구조 개선</li> <li>-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도입과 학생의 진로·경력관리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기술·직종, 융합전공 등 창조경제와 미래 유망산업 인재양성</li> <li>- 창업학과, 사회맞춤형 학과 등 선도적 교육 모델 도입</li> </ul>
참여 조건	입학정원 10% (최소 100명 이상) 또는 200명 이상 이동	입학정원 5% 이상 (최소 50명 이상) 또는 100명 이상 이동
지원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1,500억원(9개교 내외)</li> <li>- 대학별 평균 150억원, 최대 300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500억원(10개교 내외)</li> <li>- 대학별 평균 50억원</li> </ul>
권역 구분	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	5개 권역으로 구분, 균형 지원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 가지 사업의 참여조건, 지원규모, 권역구분을 비교하여 볼 때 ‘사회수요 선도대학 사업’의 경우 대형으로 ‘창조기반 선도대학 사업’의 경우 소형으로 규모적인 면에서 차별화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업내용의 측면에서도 ‘사회수요 선도대학 사업’의 경우 대학 전반의 학사조직과 정원 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창조기반 선도대학 사업’의 경우 특정 분야 중심의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사업규모의 차이가 있다. 한편 사업별 특징을 아울러 살펴보면 결국 두 가지 하위사업이 상생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결국 PRIME 사업이 추구하는 성과를 달성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파악되는 PRIME 사업의 핵심은 ‘산업수요 중심’의 학사 구조 개편과 ‘특정 분야 중심’의 학사 제도 개선을 고려한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교육환경의 혁신’이다. 따라서 〈표 4〉와 같이 대학은 사회 변화와 산업수요에 맞는 학사 구조 개편으로 합리적인 방향을 수립하고, 그에 부합하는 학생 중심의 학사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표 4〉는 PRIME 사업에 근거한 학사 구조 개편과 학사제도 개선의 예시이다. PRIME 사업으로부터 ‘사회수요’와 ‘창조기반’의 내용으로 구분되었던 하위사업들이 각각 ‘학사 구조 개편’과 ‘학사제도 개선’으로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양적 조정’과 ‘질적 개선’의 관점도 포함되는 구조이다.

35) 교육부(2015년 11월 26일),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 사업),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청년취업을 위해 필요!, 교육부 카드뉴스, <<http://blog.naver.com/moeblog/220550928887>, 2016. 1. 10.>.



〈표 4〉 PRIME 사업의 학사 구조 개편과 학사제도 개선(예)<sup>36)</sup>

구분	학사 구조 개편		학사 제도 개선	
	대학 內	대학 間	정원 유연화	다전공 활성화
양적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학과 신설</li> <li>- 학과 증원·폐지 또는 감축</li> <li>- 학문 간 융복합</li> <li>- 캠퍼스 간 정원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간 정원조정 (교원이동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동적 정원제</li> <li>- 자유 학부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중전공</li> <li>- 연계전공</li> <li>- 융합전공</li> </ul>
질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약정형/연계형 주문식 교육과정 도입 등 현장 실무 능력 제고</li> <li>- 다양한 기초학문 학업 이수를 통한 인문학적 소양 함양</li> <li>- 다전공 활성화, 융복합 교육과정 확대 등 문제해결형·통섭형 인재 육성</li> </ul>			

위와 같은 PRIME 사업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용학과의 학사 구조 개편과 학사제도 개선 안을 제시하였다. 단 PRIME 사업의 기준을 그대로 모두 수용하지 않고 무용전공 학과의 여건과 특성에 적용 가능한지에 따라 가감하여 탄력적으로 수렴하였다. 예를 들어 학과 증원·폐지 또는 감축, 캠퍼스 간 정원조정, 대학 간 정원조정에 대한 부분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교원의 신분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연구에서 배제하였다. 또한 무용학과는 대학 전반의 학사조직 내에 속해 있는 축소된 규모라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학사 구조 개편과 학사 제도 개선을 분리하기 보다는 통합적인 학사 운영의 관점에서 양적·질적 측면에서의 학사 운영(안)을 제시하였다.

〈표 5〉 PRIME 사업에 근거한 무용학과 학사 운영(안)

구분	개선 내용
양적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교과목 신설(취업연계형 교육과정 도입)</li> <li>- 다전공 활성화(다중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li> <li>- 학문간 융복합</li> </ul>
질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도입으로 현장 실무 능력 제고</li> <li>- 진로·취업과 연계되는 다전공 활성화를 통한 폭넓은 자질 함양</li> <li>- 융복합 교육과정 확대에 따른 문제해결형·통섭형 무용인재 육성</li> </ul>

〈표 5〉를 통해 PRIME 사업에 근거한 무용학과 학사 운영(안)에 있어서 양적 조정이 결국 질적 개선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업연계형 교육과정을 양적으로 확대 도입하는 것이 현장 실무 능력의 질적 제고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단일전공이 아닌 다전공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진로 및 취업 관련 자질을 함양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학문간 융복합의 양적 확대는 문제해결형·통섭형 무용인재를 육성하는 것으로 질적 개선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최오일과 조성식<sup>37)</sup>은 무용전공학생의 진로성향과 교과과정의 연계성 강화 방안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첫째, 무용학과 교과과정은 전문 무용실기만을 강조하기보다 무용예술과 관련된 ‘공연기획 및 공연예술 관련 실무과목’과 ‘실용무용과목’ 등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며, 둘째, 교과 과정에 있어 ‘무용가 양성’, ‘교육자 양성’, ‘공연예술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영역별로 세분화

36) 교육부(2015년 10월 21일),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 기본계획 시안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http://blog.naver.com/moeblog/220515010418>, 2016. 1. 5.〉.

37) 최오일·조성식(2007), p.221.

된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또한 최윤선<sup>38)</sup>은 취업 지향 무용전공 교과과정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전공의 경쟁력 강화와 대학 사회의 시장경쟁 원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취업과 관련한 교과과정 개발과 몇몇 과목에 대해 타 학과 학점 이수제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자들의 관점과 PRIME 사업의 중점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 6> PRIME 사업에 근거한 산업연계형 무용학과 교과과정(안)을 제시하였다.

<표 6> PRIME 사업에 근거한 산업연계형 무용학과 교과과정(안)

구분	관련 교과목		직업 유형	취업 시장 및 기타
전공 심화	실기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창작실습, 공연실습, 작품제작, 즉흥법 등	무용수, 안무자	국·공립, 시립, 사립 무용단
	이론	무용개론, 예술론, 창작론, 한국무용사, 서양무용사, 무용심리학 등		
취업 연계	무용교육, 무용교수법, 무용지도법, 티칭메소드 등		무용강사, 특기적성교사, 예술강사, 대학강사, 대학교수	유치원, 초·중등학교, 예술 중·고등학교, 대학교
	무용철학, 무용미학, 무용비평 등		무용평론가, 무용기자	무용 및 문화예술 잡지사
	무대론, 무용연출론, 무대미술, 타악실기, 무용음악, 무대의상, 무용분장법, 공연영상제작 등		무대감독, 조명오퍼레이터, 무대소품 디자이너, 무용음악 프로듀서, 무대의상디자이너, 무용용품 판매 사업자, 무대분장 디자이너, 무용사진작가	국·공립 예술단체, 무용음악전문 프로덕션, 무대의상 제작업체, 무용용품 판매업체, 무대분장 전문업체 또는 프리랜서, 공연사진 및 영상전문 스튜디오
	무용과학, 무용역학, 무용생리학, 인체해부학, 바디컨디셔닝, 무용상해, 예술치료, 무용요법 등		전문무용수 트레이너, (무용)동작치료사, 신체요법치료사, 예술치료사	국·공립, 시립 무용단, 휘트니스센터, 요가원, 예술심리치료센터
	예술경영, 무용공연기획, 공연예술프로그램개발, 예술홍보매체연구, 마케팅전략, 관객관리, 국제문화교류, 극장경영, 예술단체운영, 학원운영, 무용학원경영 등		공연기획가, 무용학원장, 무용학원 강사	공연예술기획사, 무용학원
	문화예술정책, 공연예술지원제도, 문화복지제도, 문화예술행정, 문화예술재원조성, 메세나 연구 등		문화예술 관련 공무원, 기업문화재단 직원, 메세나협회 직원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 기업문화재단, 메세나협회
	무용사회학, 댄스스포츠, 요가, 필라테스, 예술문화복지 프로그램 개발, 특수무용교육, 피지컬 피트니스 등		사회무용 강사, 예술문화복지사, 피트니스 트레이너	구·시립, 백화점 문화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여성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요가원, 피트니스센터

38) 최윤선(2012), p.260.

	뮤지컬시어터, 뮤지컬댄스 등	뮤지컬댄스 안무가	뮤지컬 컴퍼니
취업 연계	외국어	국제학술대회 통·번역가, 국제(무용)공연예술제 직원	무용 관련 학회, 국제공연예술제 및 무용페스티벌 조직위원회
PRIME 사업 중점	진로탐색과 자기개발, 취업진로설계, 글로벌 직업탐구, 진로지도, 취업성공전략 등	진로교육(이론)	
	무용인턴십, 예술현장 인턴십, 현장연수활동, 무용창업현장실습, 창업지도자워크샵, 공연무용취업특강, 산업체현장실습, 국외인턴십 등	인턴십(실습)	
	무용교육(무용학+교육학), 예술경영(무용학+경영학), 예술행정(무용학+행정학), 예술치료(무용학+심리학+정신분석학), 문화예술복지(무용학+사회복지학), 무용의상(무용학+의상학), 무용미학(무용학+미학) 등	다전공 활성화, 학문간 융복합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산업연계형 무용학과 교과과정(안)은 PRIME 사업에 근거한 무용학과 학사 운영(안)의 중점내용인 취업연계형 신규 교과목 도입 및 다전공 활성화, 학문간 융복합의 측면을 모두 적용하였으며, 관련 교과목별로 연계되는 직업 유형과 취업 시장의 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최근 무용 전공자의 취창업 관련 과목이 많이 개설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계명대학교의 ‘무용창업현장실습’, 단국대학교의 ‘창업지도자워크샵’, 대구카톨릭대학교의 ‘공연무용취업특강’, 서경대학교의 ‘무용학원경영’ 등과 같은 과목은 취창업 사례조사 및 취창업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요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졸업 후 현장으로의 진출을 돕는다.”<sup>39)</sup> 이러한 교육과정의 개편은 사회수요 맞춤형 무용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무용학과의 긍정적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론 또는 실습의 배움에만 그치지 않고 취업으로의 실현으로 연계될 수 있기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실정이다. 현재 대학별로 현장 연계교육 차원의 인턴십 과목은 이미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학생들의 경우라 하더라도 무용전공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을 통한 취업 연계가 현실화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대학의 내부적 노력만으로는 취업률이라는 양적 성과를 현실화시키는데 분명 한계가 있으며, 산업체와 정부의 상호협력이 이루어졌을 때 그 성과가 배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와 더불어 질적 성과의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IV. 산학관 협력을 통한 사회수요 맞춤형 무용전문인력 양성 방안

이 장에서는 PRIME 사업에 근거한 무용학과 학사 운영 개선안의 중점내용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산학관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39) 나경아·한석진(2010), 대학 무용과 내 예술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과정 분석, 『무용예술학연구』 56(5), p.51.

〈표 7〉 무용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관 협력 주체들의 상호 역할

구 분	상호 역할	
	대학 →	← 산업체
대학 ↕ 산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체가 원하는 인재 양성 및 배출</li> <li>- 진로탐색 활동 및 현장실습 학기제 시범 운영</li> <li>- 인턴십, 취업계 공식 인정 체제 정착 (교·강사 재량권 제한적 허용)</li> <li>- 전문 정보 및 지식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인턴십 외)</li> <li>- 대학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무용전문인력 양성</li> <li>- 인력수요 정보 제공</li> <li>- 실무현장 체험 기회 부여</li> <li>- 무용전문인력 채용</li> </ul>
행정기관 ↕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교육 분야 국가전문자격증 발급 지원</li> <li>- 협력 산업체 검색 서비스 제공</li> <li>- 다전공, 융복합 전문인력의 수요에 대한 정책적 활용 방안 강구 및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및 공공기관 검증 무용전문인력 배출 (각종 자격증 취득)</li> <li>- 협력 산업체 검색 서비스 활용</li> <li>- 다전공,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li> </ul>
산업체 ↕ 행정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용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에 대한 적극적 협력 태도 요구</li> <li>- 협력 산업체 검색 정보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기반시설에 문화예술교육사의 원활한 배치</li> <li>- 문화예술교육사 채용에 따른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li> <li>- 인턴십과 채용을 연계한 경우 행정지원 및 산업체 홍보</li> <li>- 지역사회인력 채용의 이점 제공</li> <li>-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책 마련</li> </ul>

### 1. 대학 ↔ 산업체 협력 방안

산학관 협력 방안에서 대학은 산업체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하게 인지해야 할 점은 ‘산업체가 원하는 인재’ 즉,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라는 것이다. 그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무용학과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점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례로 현재 중학교 과정 중에는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진로탐색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로써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있다. 자유학기제의 시행 목적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설계하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지속적으로 자기성찰과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sup>40)</sup> 하는데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발표한 2015년도 자유학기제 운영 만족도 조사결과<sup>41)</sup>에 따르면,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학교가 수업방법 개선, 학생 수업 참여, 학교생활 행복감, 교육결과, 학교 구성원 간 관계 만족도 등 학교생활 전 영역에 걸쳐 일반학교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대학에서 역시 진로탐색 활동 및 현장실습 학기제 시범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단, 학기별로 단계적 진로탐색과 현장실습 관련 과목을 이수하는 가운데 다른 전공교육과정도 병행되는 체제가 적절할 것으로 여겨진다. 무용학과의 경우 전공자들이 전공 분야의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취업이 되는 비율은 매우 미비하다. 이

40) 자유학기제 홈페이지, <[http://freeseam.moe.go.kr/page/page\\_about](http://freeseam.moe.go.kr/page/page_about), 2016.1.25>.

41) 이형노(2016년 1월 22일), 교육부, “자유학기제 운영…만족도 서로 달라”, 국제뉴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no=413144>, 2016.1.27>.

에 변화하는 사회와 직업 유형을 이해하고, 무용전공자가 진출할 수 있는 직업 유형에 대한 정보를 익히기 위해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현장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통해 무용전공 학생들의 진로와 직업 유형에 대한 고정관념도 폭넓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현재 무용 분야에서도 문화예술인턴의 일환으로 무용단 인턴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은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 또한 지적된 바 있다. 박영애<sup>42)</sup>는 국립무용단, 국립국악원, 국립발레단, 정동극장, 서울예술단의 5개 기관 문화예술인턴 38명을 대상으로 직무만족도를 설문하였는데 인턴제도의 운영에 있어 요구되는 개선점을 묻는 조사에서 ‘정규직으로 이행가능성’(23명, 60.5%), ‘인턴단원의 복무기간, 계약기간’(13명, 43.2%), ‘인턴을 대하는 단체 및 기관 사람들의 태도’(11명, 28.9%), ‘임금’(9명, 23.7%), ‘직무내용 및 복무환경’(7명, 18.4%), ‘교육프로그램 내용’(4명, 10.5%), ‘의사결정 및 소통 체계’(4명, 10.5%), 무응답(7명, 18.4%) 등의 의견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정규직으로 이행가능성’과 ‘인턴단원의 복무기간, 계약기간’에 관하여 다수의 의견이 집약되어 있는 것은 무용단 인턴단원의 신분 불안정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현안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신규단원 채용 시, 인턴 유경험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다른 기관과 협약을 통하여 인턴의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무용학과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턴십 과목의 내실화 및 교·강사 재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취업계에 대해서도 적절한 규정에 의거한 공식 인정 체제가 정착되는 것 또한 요구된다. 이와 같은 취업연계형 교육과정의 도입은 무용전공자들의 현장 실무 능력을 제고시켜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다. 전반적으로 대학은 무용단에 한정되어 있는 입턴십 제도를 다양한 산업체로 확대시켜 나가기 위하여 산업체에 대해 인력양성을 통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제공하고 산업체를 위한 전문 정보 및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한편 산업체는 협약을 맺은 대학에 인턴십 외에도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정 교육과정 로드맵을 통해 해당 대학과 공동으로 무용전문인력을 양성할 수도 있다. 산업체는 대학에 채용가능한 인력수요 정보를 제공해주며, 실무 현장 체험의 기회도 부여한다. 무엇보다도 무용전문인력을 채용하는 일자리 창출의 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 주어진다.

## 2. 행정기관 ↔ 대학 협력 방안

산학관 협력방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예술 관련 행정기관은 대학의 무용전공 학생들이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자기계발 도구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분야 국가전문자격증을 발급 지원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대학은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격증 취득을 통해 검증받은 무용전문인력 배출하게 된다. 여기서 나타나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자격증 취득 여부 및 횟수가 취업 보장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며, 그 과정에서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담당 행정기관은 자격증 발급을 남발하는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교육 및 발급절차를 재정비하고, 대학은 무용전공 학생들에게 실효성 있는 자격증 정보를 안내해야겠다.

42) 박영애(2012), 무용 분야 문화예술인턴의 직무만족도 조사 및 운영개선방안, 『우리춤과 과학기술』 18, pp.179-202.

또한 행정기관은 협력 산업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대학에 제공하고, 대학은 학생들이 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으로 무용 전공자의 취업 가능한 직업 유형을 공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과정에서 대학은 사회 변화와 직업 유형의 다양화 흐름에 맞게 다전공, 융복합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행정기관은 다전공, 융복합 전문인력의 수요에 대한 정책적 활용 방안을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기 위한 기반으로 각 대학들은 전공별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타 학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교육적인 틀을 확보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용학과 내에서 모든 교과목들을 개설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므로 연극학과, 음악학과, 의상학과 등 공연예술과 관계된 학과들과 연계과정을 편성한다면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sup>43)</sup> 예를 들어 무용교육(무용학+교육학), 예술경영(무용학+경영학), 예술행정(무용학+행정학), 예술치료(무용학+심리학+정신분석학), 문화예술복지(무용학+사회복지학), 무용의상(무용학+의상학), 무용미학(무용학+미학) 등의 경우는 학문간 융복합적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또한 “공공 문화예술복지재단의 필요성이나 무용(사회)복지사의 개념 도입, 노인문화예술복지센터 건립을 통한 노인복지시설의 무용수업 활성화,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공공 무용 프로그램 개발(무용치료와 건강예방), 평생교육으로 무용수업 확대,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등이 정책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sup>44)</sup> 대학의 융복합 교육과정 확대는 문제해결형·통섭형 무용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유사한 맥락에서 다전공 활성화는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와 관련하여 다중전공(이중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등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유연성 있는 체제로 운영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3. 산업체 ↔ 행정기관 협력 방안

산학관 협력 방안에서 무용전공자가 취업가능한 분야의 산업체는 무용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요구가 필요하며 인재 채용을 통해서 상호 유익한(win-win) 취업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 따라서 산업체는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분야 탐색을 안내하기 위한 차원에서 각 산업체가 담당행정기관에 검색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행정기관은 문화예술교육 분야 국가전문자격증 발급을 지원하고 대학은 무용전공 학생들의 각종 자격증 취득을 통해 공공기관으로부터 검증된 무용전문인력을 배출시킬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는 무용전공 졸업생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이 된 좋은 예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를 소관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sup>45)</sup>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해야할 문화기반시설은 박물관, 도서관, 문화의 집, 미술관, 문예회관 등 총 1,749개에 이르는 데에도 불구하고 2015년 8월까지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한 기관은 총 36곳, 인원은 4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채용된 문화예술교육사 중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된 것으로 보고되어 전문 자격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여기서 문화예술교육사 채

43) 조은숙(2006), pp.12-13.

44) 백현순(2012), p.177.

45) 신형수(2015년 9월 1일), 유은혜 “문화예술교육사 채용은 뒷전, 자격증만 남발”, 신형수 현 언론인 블로그, <<http://blog.naver.com/shs5280/220468443952>, 2015. 12. 20.>.

용에 따라 외부에서 예산지원을 받는 24곳을 제외하면 12곳만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문화예술 교육사를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권영임, 차수정<sup>46)</sup>의 연구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를 통해 배출되는 강사들의 양적 팽창은 교육과정 및 연수교육의 문제, 자격 취득 및 취업 관련 문제, 현장에서의 문제, 근로조건 및 강사처우의 문제 등의 네 가지 측면으로 분류된다. 또한 상기 실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두 가지 시사점과 연관된다. 자격증 보유자의 과다 배출과 기능 상실의 문제점을 위해서는 현재의 문화예술교육사가 단순한 능력 인정형자격증이 아닌 보다 높은 인정형 자격증인 면허자격증 또는 고용형 자격증으로 변환되도록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자격 취득자들의 일자리 제공 부족으로 겪는 문제점은 문화예술교육사를 희망하는 예술전공자들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조직적인 사전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인력을 채용한다는 것은 인건비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문화기반시설에 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가 원활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정부 차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 또한 요구된다.

대학과 산업체 간 인턴십과 채용을 연계한 경우 정책적으로 산업체에 행정적 지원 및 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해주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긍정적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책적으로 채용 기준이 되는 전공일치여부 외 지역사회인력 특별채용과 같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면 해당 지역 무용전문인력의 채용과 지역사회발전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행정기관은 산업체에 지역사회인력 채용의 이점을 제공하고 결국 그러한 이점을 제공받기 위해 무용전문인력의 일자리가 조금이나마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비단 무용 분야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책도 마련되어야 산업체에서 무용인력 채용 시 무용전공자의 안정된 일자리가 점차 보장되리라 생각된다.

##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현안을 직시하여 새롭게 제시된 국가의 정책을 파악해보고 무용전공자들의 대응을 위하여 산학관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정책 >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 PRIME 사업에 근거한 무용학과 학사 운영(안) > 산업연계형 무용학과 교과과정(안) > 무용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관 협력 주체들의 상호 역할 > 산학관 협력을 위한 관련 주체들의 개별적 역할 제시의 절차로 관점을 축소시키면서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로 도출된 산학관 협력을 위한 관련 주체들의 역할을 개별적으로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체 협력 방안으로는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인력수요 정보 제공, 실무현장 체험 기회 제공, 무용전문인력 채용 등이 있다. 또한 무용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에 대한 적극적 협력 태도가 요구된다.

둘째, 학계 협력 방안으로는 산업체가 원하는 인재 양성 및 배출, 진로탐색 활동 및 현장실습 학기제 시범 운영, 인턴십, 취업계 공식 인정 체제 정착 등이 있다.

셋째, 행정기관 협력 방안으로는 문화예술교육 분야 국가전문자격증 발급 지원, 협력 산업체 검색 서

46) 권영임·차수정(2015),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가치와 발전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7), pp.601-617.

비스 제공, 다전공, 융복합 전문인력의 수요에 대한 정책적 활용 방안 강구 및 제시, 문화기반시설에 문화예술교육사의 원활한 배치 등이 있다.

단, 산학관 협력을 통한 무용전문인력 양성의 활성화에는 부득이 저해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 산학관 협력의 역할모델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저해요인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본 논문의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무용 분야에 특화된 산학관 협력의 역할모델 개발이 필요하며, 산학관 협력모델의 현장 적용을 목적으로 산학관 전문가 집단 의견조사를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

대학이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현재 변화된 교육정책 하에 노동시장의 조건과 환경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차별화된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현 실정으로는 이공계 분야에서 충원되어야 할 인력은 증가하는 반면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 오히려 인력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 특히 예술학 분야 중에서도 무용전공의 경우 상대적으로 산업체 연계 기회가 부족하며 제한적이기에,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더더욱 필요하다 하겠다. 이제는 무용전공자들의 진로와 취업의 한계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하고 사회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자구적 노력이 긴요하며, 산학관 각계의 협력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사료된다.



## ■ 참고문헌

- 교육부(2015).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 공청회 설명자료』.
- 무용교과독립추진위원회(2003). 『무용교과독립을 위한 제2차 심포지움: 무용교육 현장보고』.
- 전호문(2005). 『지역스포츠타 산업 개발을 위한 산학관 협력 모델 개발[결과보고서]』. 한국연구재단 (NRF) 연구성과물.
- 한국교육개발원(2015). 『201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 취업통계연보』.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 권영임·김수정(2015).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의 가치와 발전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7): 601-617.
- 김설아·김선웅(2014). 무용전공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진로성숙도의 특성분석. 『체육연구』, 10(1): 53-60.
- 김영옥(2007). 대학무용과의 교육과정과 취업에 대한 연구. 『대한무용학회논문집』, 53: 23-37.
- 김화숙(1993). 무용(학)과 졸업생 진로문제의 방향 모색을 위한 무용(학)과의 체제분석.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 7-27.
- 나경아·한석진(2010). 대학 무용과 내 예술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과정 분석. 『무용예술학연구』, 56(5): 39-56.
- 민춘기(2013). 대학생 진로교육 개선을 위한 해외의 정책과 운영 사례 비교. 『비교교육연구』, 23(4): 31-58.
- 박영애(2012). 무용분야 문화예술인턴의 직무만족도 조사 및 운영개선방안. 『우리춤과 과학기술』, 18: 179-202.
- 백현순(2012). 무용전공자의 취업 방향 모색. 『한국무용연구』, 30(1): 166.
- 이해준·이윤경(2014). 무용전공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의식 조사. 『한국무용과학회지』, 31(2): 17-33.
- 이희복(2014). 광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관학 협력 방안. 『광고연구』, 102: 181-201.
- 조은숙(2006). 무용학과의 전문교육과 취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17(2): 1-14.
- 최오일·조성식(2007). 무용전공 대학생의 진로성향에 따르는 교과과정연구. 『우리춤과 과학기술』, 5: 205-224.
- 최윤선(2012). 시장중심 무용학과 교과과정 모형 개발 제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 254-264.
- Adebisi, M. A. and Akinkuowo, F. O.(2015). Contemporary Issues Necessitating Reform in Higher Education Programs and Curricula in Response to Challenges of Employability. *African Higher Education Review*, 9(1-2): 71-77.
- Shuang Ren, Ying Zhu and Malcolm Warner(2011). Human resources, higher education reform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university graduate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22(16): 3429-3446.
- 교육부(2015년 9월 10일). 청년 일자리와 취업 문제 해결 뿐 아니라 더 나은 일자리창출을 돕는 사

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 교육부 카드뉴스. <<http://blog.naver.com/moeblog/220477487157>, 2015. 12. 20.>.

교육부(2015년 10월 21일).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 기본계획 시안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http://blog.naver.com/moeblog/220515010418>, 2016. 1. 5.>.

교육부(2015년 11월 26일).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 사업),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취업을 위해 필요!. 교육부 카드뉴스. <<http://blog.naver.com/moeblog/220550928887>, 2016. 1. 10.>.

신형수(2015년 9월 1일). 유은혜 “문화예술교육사 채용은 뒷전, 자격증만 남발”. 신형수 현 언론인 블로그. <<http://blog.naver.com/shs5280/220468443952>, 2015. 12. 20.>.

이영태(2016년 2월 4일). 박 대통령 “대학은 기업과 사회 발전 이끄는 동력”.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204000532>, 2016. 2. 4.>.

이형노(2016년 1월 22일). 교육부, “자유학기제 운영…만족도 서로 달라”. 국제뉴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144>, 2016. 1. 27.>.

교육개혁 홈페이지. <<http://www.moe.go.kr/public/educationReform/index.jsp>, 2016. 1. 10.>.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 <[http://www.ncs.go.kr/ncs/page.do?sk=P1A1\\_PG01\\_001](http://www.ncs.go.kr/ncs/page.do?sk=P1A1_PG01_001), 2016. 2. 19.>.

자유학기제 홈페이지. <[http://freesem.moe.go.kr/page/page\\_about](http://freesem.moe.go.kr/page/page_about), 2016. 1. 25.>.

논문투고일	2016. 2. 15
심사일	2016. 3. 2
심사완료일	2016. 3. 11

## Abstract

# A Plan of Industry-Academy-Government Cooperation for Training of Social Demand Customized Dance Experts

- Based on the PRIME Project -

**Bae, Su Eul**

Lecturer of Dankook Univ. & Seokyeong Univ.

This study was aims at looking straight at the pending social issues to understand the newly suggested national policy and suggesting Industry-Academy-Government Cooperation plans for dance experts. The following are the roles of the main agent of Industry-Academy-Government Cooperation deduced by the study.

First, the industrial cooperation plans include providing customized curriculum for industry, practical field experience and employing dance experts. Moreover, the active attitude for training and employing dance experts are required.

Second, the academic cooperation plans include training and producing manpower the industry wants, operating career inquiry activities and test-operation for field practice semester, internship, settling the official acknowledgment system for employed students, etc.

Third, the government cooperation plans include expanding financial investment on dance education, supporting national license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 education, and seeking for applications of multiple majors, demand of converged experts, etc.

Keywords: Social demand customized(사회수요 맞춤형), Dance experts(무용전문인력), Employment(취업), Industry-academy-government(산학관), Cooperation plan(협력 방안)